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오호루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요금	1760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일 일요일	Issue No.	1760
		Date	Sept. 12, 1969: Fri.

남비에트남 주류 미군 서로 트만초전명 철로예정 전투축소 계속도 가능

(사이곤 9월10일발, 에이피) 12일 배아관에서 열리는 "비에트남 회의"를 마지하여, 10일 사이곤에서 미당국과 남비에트남정부수뇌의 회담이 거행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미군의 추가철병, 전투의 축소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에이부람스미원조군사령관은 3만5천명의 추가철병을 수락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실현된다면, 남비에트남 주류의 미군병력은 47만5천명으로 될 것이다. 또 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에이부람스미원조군사령관은 버-거대리대사와 같이 이번의 휴전을 사모하는 미국, 남비에트남의 태도의 차이를 메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삼압리에 휴전에 동의하고, 목적을 포함하여 공격작전을 대폭으로 삭감한데 대해서, 후대통령은 공언히 휴전을 거부, 전우행위를 격화시켰다. 이차이의 표현으로서, 휴전기간중 일부 전선에서는 남비에트남군의 출격에 대해서 미군사령부가 헤리콜러, 대포, 폭격기 등에 의한 지원을 거부한 사례도 생겼다. 9일부터 10일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충돌이 잇섯을 다름이다. 미군사령부에 의하면 6건의 충돌에서 미군 2명, 공산군 19명이 사망하였다.

비에트남 휴전 완료, 와싱톤서 비에트남 회의

(와싱톤 9월10일발, 에이피) 공산군의 선언한 오.지.민 북비에트남대통령장예휴전기간은 하노이 시간 11일 오전 1시에 "뚫났다. 미군대변인에 의하면, 중로지우 적의 새로운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후기공세가 재개될 것인가는 아직 명백치 않다. 에이부람스미원조군사령관은, 12일 니슨대통령이 비에트남정세를 검토하기 위해 군.외교당사자를 소집하여 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전에, 10일 후남비에트남대통령과 회담하였다. 또 버거 미대리대사도 별개로 후대통령과 회담하였다.

휴전전의 상태로 복귀

(와싱톤 9월10일발, 에이피) 지구러대통령보도관은 "장예휴전의 기간중 후미군은 휴전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우행위에 돌아간다. 미군행동이 원상회복수도 있는데, 만일 적의 행동이 거부의 3일간 정도의 낮은 정도로 계속된다면 미측이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파리 화평회담 수주일로 연기

(파리 9월10일발, 에이피) 파리회담평화회담은 오.지.민 북비에트남대통령사거 때문에 일주일간 연기되었는데, 내일 개회의 예정을 다시 13일로 연기하기로 당사국의 일치 의견을 보았다.

(제2면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처음 남비에트뎀입시혁명정부 (해방전선)은 호대통령의 장악이 닳나는 12일을 제안하였는데, 남비에트뎀은 "호대통령의 죽음을 선전으로 이용하고있다" 라고 반대, 미, 남비에트뎀측으로부터 13일의 제안을내고, 합의를본것이다.

타이 주류미군의 철병수에 합의

(뱅크 9월10일발, 에이피) 타이주류미군의 철병원수에대해서, 미, 타이양국간에 합의를보았다 고 라눔.라이수상으로부러 발표가있었는데, 이의 시기와 확실한 수는 아직 명백치안다. 라눔 수상의하하면, 모든 공동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금주중에는 발표되지안다. 타이주류의 미군병력은 약4만9천명으로, 그의 대다수는 미공군이다. 미대사관도 철병원수에대해 아무 말을 하지안코있다.

이스라엘군 부대 애랍영내에 침입

(렐아비부 9월9일발, 에이피) 이스라엘, 애랍연합군은 8일 스에즈만 라스.사닷트부근에서 해전을 전개, 이스라엘측의 발표에의하면 애랍연합수 퇴적 2척을 격침하였다. 애랍연합측은 이를 인정치안코, 반대로 이스라엘함 1척을 격침하였다고 말하고있다. 또 9일 이스라엘공군과 장갑차부대는 스에즈만을 넘어, 애랍영내로 침입, 30마일에걸친 지역에 10시간 공격을 가하였다.

중동전쟁 이래의 최고 최대 추보

양일의 고전은 1967년의 중동전쟁이래 최대의 규모의것이다. 이스라엘측의 발표에의하면, 9일의 공격에서 해로 수송되고있든 이스라엘 장갑차부대는 애랍연합군기지를 공격, 애랍측에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외에, 시설에 다대한 손해를 주었다. 이스라엘측의 손실은 중상 한사람으로되어 있다. 이 와동시에 이스라엘군은 애랍연합의 소련제대공미사일기, 레이다.기지등을 공습하였다. 애랍연합군의 반공은, 해상 공중에 보이지안혔다.

이스라엘 공군기 애랍영공에 재침입

(렐아비부 10일발, 에이피) 이스라엘공군의 젓트기는 10일 애랍연합(에지트) 영공에 침입, 애랍연합군의 차량군에 폭격, 기총소사를하였는데, 이 지구는 9일 이스라엘군의 철차대와 공군이 대규모의 공격을한 지구이다. 애랍연합측은 10일 지상포화에서 이스라엘기기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스라엘측은 전기무사히 격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10일 이에앞서 다한. 이스라엘국방상은, 애랍연합이 정전협정을 존중하지안는한, 이스라엘은 또 강한 공격을 가할것 이라고 경고하고있었다.

오기나와에 바크라지 주류 필요 없다

(와싱톤 9월10일발, 에이피) 미국의 해외군사비사감을 주장하고있는 사이민은 미상원의원(민주당)은 "미국은 장래, 해외파병을 대폭으로 감소하고, 긴급발생의 위급사태에만, 본국으로부터 병원을 파견하여야안다" 라고 구상과같이 다음의 점을 명백히하였다. 아세아에있서서서 미군주류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일본과의 관계인데, 미국으로서의 오기나와의 불비52의 작전기지로서 존속시킬 필요는 거의없다. 만일 오기나와에서 활동이 중지된다면, 미국으로서 일본의 기지의 가치는 대폭으로 저하된다.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일환으로서 일본이 아세아 지역의 안정에 관심이있는 제국과의 "태평양공동체"에 참가하는 전조로서 중국의 용상권력을 증강하게된다면, 가장 미국의 이익으로될것이다.

국가안보회의서 오기나와 문제 검토

(와싱톤 9월10일발, 공동) 백악관이 9일 안전보장회의를 10, 11의 양일에 연다고발표한것으로 보아, 와싱톤에서 미정부당국이 이회의에서 오기나와문제도 검토할것이라는 관측이있다. 그이유는 지구대통령보도관이 긴급한 비에트뎀 중동문제는 모두 이회의에서 논의되지안는다고 말하였기때문이다.

十四일에 쿠름미코, 라자스 회담

(와싱톤 9월10일발, 에이피) 쿠름미코 소련 외상은 다음의 극련총회출석을위해 14일 뉴욕에 도착 예정이며, 미당국은 전략무기경쟁의 완화에대해서 회담을 시작하자는 닉슨대통령의 요청에대해서 쿠름미코외상으로부러 라자스미국무장관에 회담이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라자스장관은 대주 화요일 뉴욕에서 쿠름미코외상과 회담의 예정으로, 그대 라자스장관은 중동 문제에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계획이라고한다.

모택동 주석 귀국설

(홍콩 9월10일발, 에이피) 홍콩의 신문보도에의하면, 중공의 모택동주석이 종래라는 보도가 남중국방면에서 나오고있다. 이것에 관련해서 모택동부인, 리 피아오, 주은태사이에 권력싸움이 시작되고있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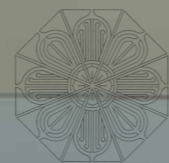
한국에 호연자 발생

(서울 9월10일발, 공동) 한국보건사회부 10일의 발표에의하면 한국서해안에서 발생한 신형 오염자의 환자수는 10일오전9시현재 469명에 도달하고있으며, 이중 25명이 사망하고있다. 보건사회부는 5일, 군산시의 부안, 고상동 전라북도시와, 예천 (충청남도)등 일시 4군을 오염자전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예방수사중명을 갖지안는자의 동지구예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10일에는 전주, 이리, 원주까지에 퍼져서 전염지구는 10지구에 이르렀다. 또 선박의 원래에있서서 부근방만 출입의 제한, 해산물의 수출금지등 방역대책을 취하고있다. 일본예의 상륙이 걱정되고있는데, 한일간의 태왕호는 고배, 부산간에 아리랑호 기타예의한 정기함도, 일본항공, 대한항공등 항공 5회사로서, 동경, 오사가, 우 두오가와 서울, 부산을 연락하고있다. 부산을 연락하고있는 비행기만으로도 매일 약7백명이 왕래하고있다. 이외에 밀항의 길도있서 만일 일본상륙이라면, 이것이 위험하다고보고있다.

더-크슨 공화당상원원내총무 총무 별세

(와싱톤 9월8일발, 에이피) 에베렛.더-크슨 공화당상원원내총무는 1일 암의 수술후, 회복을 하고있었는데, 7일 심장마비로 윌러.리트속군병원에서 사망 73세로 별세하였다. 시체는 미동부 시간으로 9일정오부터 24시간 국회의사당의 원형물에 안치된다. 장의는 10일오후 2시부터 미국 상모교회에서 거행되며 11일, 유체는 고함의 이리노이주 메킨에 운반될 예정이다. 닉슨대통령은 9일 의사당에서의 추도식에 출석, 조사를한다. 상원은 오늘 더-크슨원내총무의 추도절을 채택한후, 12분간으로 산회하였다. 펜스윌드민 주당원내총무는 "더-크슨총무의 개성은 워싱턴의 재료가될것이며, 상원에 업서지안는 자극과 영향을 남겼다." 라고 말하였다.

사망의 소식을들은 닉슨대통령은 "정계와 행정 부에대해서 고인의 한 공헌은 단대 비교할때가업고 그의 스타일과 용변은 현재의 정계지도자의 누구보다도 조흔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는 대통령은 "고인은지난날의 장력을 오늘의 정계에 가져왔다" 라고 조전을 미당원에 보냈다.



이 문장의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주요의 문장수사의 화

이 문장의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의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은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이 문장의 시의가 반사사 = 2의 리지

